

## 일제강점기 『朝鮮と建築』 권두그림에 게재된 조선인 개인주택에 대한 고찰

### A Research on the Korean Private Residence Published in Kuchie, 'Chosun and Architectur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서귀숙\*  
Suh, Kuee-Sook

#### Abstract

This research is about the Korean private residence as the actual housing published in Kuchie, 'Chosun and Architecture'. Research about the Korean private residenc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s important to find out the influence of foreign culture on Korean housing during that period. This research is necessary to reveal the tendency of modernization of Korean housing and how the foreign cultural relationship transformed and applied to the Korean housing.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mainly on the 16 Korean private residences published in 'Chosun and Architecture'. The main subject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architectural floor plan, building material and heating facilities etc. Other important themes of the research are the practical side of actual housing plan, interior furnitures and fittings, electrical fittings and the classification of life style.

Keywords : Chosun and Architecture, Kuchie, Korean private residence, Japanese colonial period

주요어 : 朝鮮と建築, 권두그림(口繪), 조선인 개인주택, 일제강점기

#### I. 서론

일제강점기 한반도에는 다양한 외래문화의 유입과 도시화로 인하여 다양한 주거가 혼재되었던 시기이다. 동시대의 주거관련 연구는 일식주거의 변천, 한국인 건축가에 의한 주거근대화, 20년대의 주택개량, 문화주택, 관사, 30년대 도시형 한옥연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동시기에 건축되었던 조선인의 주택 특히, 개인주택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이 개인주택을 건축한다는 것이 상위 계층 생활자를 제외한 일반 서민에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내재하고 있어 개인주택의 건축이 쉽지 않았다는 점과 그러한 조선인 개인주택 건축물과 관련한 자료 또한 현재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개인주택에 주목하여 그 주택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개인주택을 고찰하는 것은 한국 근대화 주택의 동향과 외국과의 영향관계에서 실제로 어떻게 변화되고 외래의 문화가 조선인 주택에 어떤 방법으로 적용되었는지 그 전유과정과 주택양식을 밝히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과 연계를 갖는다. 따라서 본

- 1) 김정아(1992), 일제시대 주택개량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성호(1997), 일제강점기 속복도형 일식주택의 이식과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 임창복(1991), 일제시대 한국인 건축가에 의한 주거근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7권 5호.
- 안성호(2001), 일제강점기 주택개량운동에 나타난 문화주택의 의미, 한국주거학회지, 12권 4호, p.185-194.
- 안성호(2001), 일제강점기 관사의 주거사적 의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권 11호.
- 박철진(2002), 1930년대 경성부 도시형 한옥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평면계획의 특성,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p.95-106.
- 심우갑(2002), 일제강점기 아파트 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8권 9호, p.159-168.

\*정회원, 숭실대 건축학부 실내건축전공 조교수, Ph.D

본 논문은 2002년도 숭실대학교 교내 학술연구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연구에서는 『朝鮮と建築』에 실물주택으로 게재된 조선인 개인주택의 건축양식과 평면의 특징을 분석·고찰하여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조선인 주택의 성격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주택이 근대적 방법으로 변화되어가는 양상의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조선인 개인주택에 대한 실물자료는 알려진 수가 많지 않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어 이 분야의 연구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건축전문협회인 조선건축회에 의해 발간된 『朝鮮と建築』<sup>2)</sup>에 게재된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922년 창립된 조선건축회는 창립과 동시에 『朝鮮と建築』의 기관지를 발행하였고, 조선건축회가 해산하기까지 발간을 계속하여 1944년 23집 11·12월 통권을 마지막으로 폐간되었다. 『朝鮮と建築』은 22년간 건축잡지로서 당시 조선에서의 건축상황 및 사업을 소개하고, 조선건축회가 주관한 도시계획, 건축법규, 주택문제 등에 관한 조사 연구의 성과를 발표할 수 있었던 유일한 매개체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922년에 창간되어 그 이전의 건축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朝鮮と建築』에는 실제로 건축되었던 실물주택을 기사에 수록하고 있어, 1922년 이후 당시의 주택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조선에서는 유일한 건축잡지로서 게재 대상의 대부분이 상류주택이라는 한계가 본 연구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실시되지 않은 주택계획안이 아닌 실물주택으로서 당시 주거생활이 이루어졌던 조선인 주택의 경향과 평면을 파악하기에 가장 유용한 자료임을 말할 수 있다.

## II. 권두그림게재 조선인 개인주택 개요

『朝鮮と建築』 건축잡지는 口繪, 본문,<sup>3)</sup> 회보<sup>4)</sup> 내

용으로 편집구성을 이루고 있다. 이 중에서 口繪는 잡지의 첫머리에 수록되는 그림(卷頭그림)으로, 당시 실제로 건축된 건축물<sup>5)</sup>을 매 월호 표지와 목차 다음 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권두그림에 게재되는 건축물은 각 시기에 건축되어진 건축물의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를 게재하는 것으로, 매달 가장 대표적이면서 사회에 관심을 이끄는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물의 건축물 중에서 주택을 조사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관사나 사택, 기숙사, 아파트 등을 제외한 개인주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1>을 보면, 조선인 주택은 16개가 게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과 조선건축회가 조선에 주재하는 일본인을 중심으로 결성된 협회이면서, 또한 『朝鮮と建築』 잡지에는 일본인을 위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인 주택의 게재가 적음은 이러한 영향의 결과로 볼 수 있겠다.

개인주택은 권두그림에, 건축된 실물 사진과 도면, 설명을 내용으로 게재하고 있다. 사진은 주택의 외관과 실의 내부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주택도면의 이해도를 높여주고 있으며, 당시의 실내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일부 주택에서는 권두그림에 사진만을 수록하고 도면과 공사개요는 본문에 별도 기사로 게재하기도 한다.

조선인의 개인주택은 조사 자료에서 모두 당시 조선의 수도인 경성(京城)에 소재하고 있어, 개인주택 건축이 도시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축설계자는 소개가 되지 않거나, 「KE씨, 박길룡, 江島, 大隅」로 설명되어 박길룡을 제외한 일본인의 설계자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으며, 20집 4호의 金氏邸은 「건축주」로 설명되어 설계자 자신의 개인주택으로 보인다. 시공자에 대해서는 소개가 되지 않거나, 또는 「宮本多助, 多田工務店, 湖南組金陀, 大林組, 小川藤郎, 下田彌作, 和田工務店」로 기재하고 있어, 일본인 시공회사에 의해 건축되고 있으며, 20집 4호의 金氏邸은 「직영」으로 설명되어 건축주가 설계자

2) 본 연구에서는 『朝鮮と建築』의 전권 중에서 자료입수가 불가능하였던 39권을 제외한 226권을 연구자료로 하였다.

3) 게재 내용은, 인사, 강연, 좌담회, 논설, 연구, 자료, 해외통신, 잡필, 설계공사개요 등의 기사를 수록하고 있다. 본문에 대한 상세한 분류는 金珠也(1999)의 논문, 日本強占期の建築 朝鮮建築建築の機誌 『朝鮮と建築』と住宅改良運動に就いて, 京都工芸繊維大学博士論文, p.40-41, p.43-45를 참조한다.

4) 회보는 조선건축회의 임원회의 기록, 임원활동, 임직원 이동 등의 기사를 수록하고 있다.

5) 게재된 건축물로는 주거, 상업건물, 교육시설, 사무시설, 관공서 건물, 종교건물, 역사건물 등이며, 이 외에는 현상설계당선안, 박람회, 전시회, 졸업설계작품 등이 내용을 이루고 있다. 口繪에 대한 상세 게재내용 분류는 주 3의 金珠也(1999)의 논문, p. 38-39, p. 41-43을 참조한다.

표 1. 권두그림 게재 조선인 개인주택

년도	輯·号	조선인 개인주택				
		제목	소재 위치	설계자	시공	게재 사항
1929	8-2	禹鐘觀氏邸	京城府嘉會洞	KE씨	宮本多助	사진+(설명+도면)**
	8-7	禹氏宅*				사진
	8-12	金季洙邸	京城府外北里	朴吉龍建築事務所	-	사진+도면+(공사개요)
1932	11-2	禹鐘觀氏新邸	京城府桂洞	江島	多田工務店	사진+(도면+공사개요)
	11-7	金明鎮氏住宅	京城府寬勳洞	朴吉龍建築事務所	湖南組金陀	사진+(도면+공사개요)
1938	17-5	京城府新橋町某氏邸	-	-	-	사진+도면
	17-8	崔昌學氏邸	-	-	大林組	사진+도면+(공사개요)
1939	18-3	尹氏邸	京城府新堂町	朴吉龍建築事務所	小川藤郎	사진+(도면+공사개요)
	18-9	某氏邸洋館	京城府嘉會町	朴吉龍建築事務所	下田彌作	사진+간략 설명
	18-11	某氏住宅	-	-	和田工務店	사진+(도면+공사개요)
1940	19-1	金明夏氏住宅	京城府樂園町	-	-	사진+도면+간략설명
	19-2	某氏邸	-	-	-	사진+도면+간략설명
	19-2	李氏邸	京城府 壽松町	-	-	사진+도면+간략설명
1941	20-4	金氏邸	京城府清雲町	建築主	直營	사진+도면+설명
	20-4	尹氏邸	京城府社稷町高臺	朴吉龍建築事務所	下田彌作	사진+간략 설명
1943	22-1	某氏邸	-	大隅建築事務所	-	사진+도면+간략설명

\*8집 7호의 禹氏宅는 8집 2호의 禹鐘觀氏邸의 일부를 소개한 동일한 주택이다.

\*\*() 내용은 본문에 기사로 소개하고 있다.

인 동시에 시공을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II. 조선인 개인주택 분석

#### 1. 건축구조·건축재료·설비

조선인 실물주택의 구조양식과 재료 및 설비사용 방법을 설명 또는 공사개요와 게재사진, 도면관찰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표 2>를 통해서 2층 구조는 12주택, 단층구조 2주택, 준 2층 구조 1주택으로 대부분이 2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준2층을 포함하여 2층 구조는 벽돌조적식(煉瓦造)과 기초 콘크리트 지형 위 또는 철근콘크리트 지형 위 벽돌조적식을 사용하고 있어 서구식 주택의 구조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 외 일부주택에서는 일본식 목구조(木造)의 적용으로 일본식 건축구조를 보이며, 단층구조에서는 조선식 목구조로 재래 조선식 구조의 사용을 나타내고 있다.

건축재료에서는 외부 벽 재료에 타일, 화강석, 벽돌 등을 사용하고, 페인트(ペンキ로 표기) 및 니스(ニス로 표기), 리소이드<sup>6)</sup>(リソイド로 표기)도장, 네

일크리트<sup>7)</sup>(ネイルクリット로 표기)뿔칠로 마감처리를 하고 있다. 이들 재료는 모두 서구식 주택에서 사용되는 재료로 조선식 주택에는 사용되지 않는 새로운 건축재료라고 할 수 있다.

지붕에는 석면 및 천연 슬레이트<sup>8)</sup>(スレート로 표기), 스페니쉬 기와, 몰탈 기와, 또는 철근 콘크리트 등의 재료사용과 일부 평지붕에는 방수처리마감을 하고 있으며, 이들 재료 또한 서구식 구조방법에 일치하는 건축재료이다. 笹慶一가 연구 발표한 「조선에서의 주택변천(朝鮮に於ける住宅の郎遷)」에서 “1922년 이전까지 조선 내 일본인들의 주택은 총독부에

6) 설명에 일본어 리소이드로 표기되어 있으나, 명확한 외래어 표기가 아닌 古語로 불분명한 도장명이다. 유사한 벽면 도장 재료로 독일에서 lithin이라는 벽재료를 수입하여 이 재료를 스크래칭(scratching)하여 마감한 것으로 lithin마감, scratching finish of stucco가 있다.

7) 설명에 일본어 네일크리트로 표기되어 명확한 외래어 표기가 아닌 古語로 불분명하나, nail plate 사용의 벽 도장으로 추정함.

8) 슬레이트는 영문표기로 slate이며, 점판암, 형암 등의 판석류로 지붕 재료와 외장재로 사용됨. 석면시멘트판, 무석면섬유시멘트판 등 인공제품이 있음.

표 2. 조선인 개인주택의 구조·재료·설비<sup>9)</sup>

년도	輯·号	개인주택	건축구조	건축재료	보온설비	건축양식	외관
1929	8-2+7	禹鐘觀氏邸	·2층 ·기초 콘크리트 지형 위 煉瓦造, 일부 亂石 쌓기	·외부벽: 3면 타일붙임, 일부 풀 탈 刷毛 마감. ·벤키 또는 니스도장마감. ·지붕: 石綿スレート	·岩崎式ベチカ ·川上式 温突 ·조선 재래 온돌	서구식	
	8-12	金季洙邸	·2층 ·기초 콘크리트造	·외부벽: 煉瓦積 ·지붕: 옥상과 평지붕은 철근 콘크리트에 방수처리. 일부지붕은 天然スレート	·조선 재래 온돌 ·온수난방	서구식	
1932	11-2	禹鐘觀氏新邸	·2층 ·煉瓦造	·외부벽: 煉瓦 위 리소이드 도장 ·지붕: 淺野スレート	·온수난방	서구식	
	11-7	金明鑣氏住宅	·2층 ·기초 콘크리트 위 煉瓦造	·외부벽: 煉瓦積 위 스크래치 타일마감 ·지붕: 철근콘크리트에 방수처리	·온수난방 (radiator)	서구식	
1938	17-5	京城府新橋町 某氏邸	·단층 ·조선식 木造	(설명없음)	·조선식 재래 온돌	조선식	
	17-8	崔昌學氏邸	·2층 ·철근콘크리트와 煉瓦積	·외부벽: 煉瓦積 ·지붕: 宮城懸産 天然スレート	·모든 실 온수난방 (stove)	서구식	
1939	18-3	尹氏邸	·2층 ·煉瓦造	·외부벽: 煉瓦積 위 네일크리트 뽕침마감 ·지붕: 스페니쉬 기와, 일부 평지 붓은 방수처리에 타일마감	·온수난방 (radiator)	서구식	
	18-9	某氏邸洋館	·2층 ·기초 콘크리트 위 煉瓦造	·외부벽: 煉瓦積 위 네일크리트 뽕침마감 ·지붕: 스페니쉬 기와	- (설명없음)	서구식	
	18-11	某氏住宅	·2층 ·일본식 木造	·외부벽: 木造 위 몰탈도장 후 네일크리트·스프리 마감 ·지붕: 몰탈기와	·일부 온돌	일본식	
1940	19-1	金明夏氏住宅	·2층 ·煉瓦造	·외부벽: 煉瓦積 위 네일크리트 뽕침마감 ·지붕: 東亞 스レート	·온수난방	서구식	
	19-2	某氏邸	·단층 ·조선식 木造	(설명없음)	·조선식 재래 온돌	조선식	
	19-2	李氏邸	·2층 ·煉瓦造	·외부벽: 煉瓦積 위 네일크리트 뽕침마감 ·지붕: 夫婦기와?	·개량온돌	서구식	
1941	20-4	金氏邸	·2층 ·煉瓦造	·외부벽: 煉瓦積 위 네일크리트 뽕침마감, 일부타 일마감 ·지붕: 스レート, 일부평지붕은 방수처리	·설명에는 없으나, 도면상 모든 실이 온돌로 표기되어 온수난방으로 추정됨	서구식	
	20-4	尹氏邸	·2층 ·煉瓦造	·외부벽: 煉瓦積 위 네일크리트 뽕침마감 ·지붕: (설명없음)	- (설명없음)	서구식	
1943	22-1	某氏邸	·준 2층 (설명없음)	(설명없음)	·설명에는 없으나, 사진에 실의 스팀 설비가 되어 있어 온수난방으로 추정됨	서구식	

의해 서구풍의 주택이 장려되었고, 당시 관사에는 벽돌조적식에 대부분이 화장벽돌(化粧煉瓦)쌓기로 하였으며, 지붕은 초기에는 일본형 기와를 사용하고, 후에는 일본형 시멘트기와 또는 아사노(淺野)슬레이트로 하였다(중략). 1923년 이후 각종의 지붕 재료가 수입되어 사용되었으나 대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일본형 시멘트기와(또는 燒瓦), 2) 인조 슬레이트<sup>10)</sup>로 설명하고 있어, 조선인 개인주택에서의 건축구조와 사용재료는 당시 조선 내 일본인들의 서구식주택 선호와 이에 일치하는 건축재료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보온설비는 주택의 난방과 관련하고 방한에 대비하는 설비이다. 조선식 주택양식에서는 재래의 온돌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일본식 주택에서는 일부 실만을 제한적으로 재래의 온돌난방을 사용하여 일시적인 방한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서구식 주택양식에서는 온수난방<sup>11)</sup>, 페치카(ペチカ로 표기)라는 새로운 설비방법으로 실들의 보온을 처리하고 있다.

禹鐘觀氏邸(8집2호~7호)의 경우에는 페치카, 개량 온돌(川上式溫突로 표기), 재래온돌의 세가지 난방방법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어 정비된 보온설비보다는 난방의 혼재로 당시 서구식 주택구조에서의 난방설비문제를 읽을 수 있다. 이로서 설비에서는 조선식을 제외한 서구식과 일본식 주택에서 난방과 관련하는 설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 평면 및 내부공간 구성요소

조선인 실물주택의 평면에서 실 구성, 실내구성재, 가구, 장식 등을 설명 또는 공사개요, 도면, 실물사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설명되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는 평면 또는 게재사진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18집 9호와 20집 4호는 도면게재가 없는 관계로, 또한 22집 1호는 도면의 원본상태가 불량하여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정리는 <표 3>과 같다.

9) 권두그림에 게재된 사진과 설명, 공사개요에서 연구자가 구조, 재료, 설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음.

10) 笹鹿 -, 朝鮮に於ける住宅の変遷, 『朝鮮と建築』, 17輯 2号(1938, 2), p.5, p.7

11) 온수난방(hot water heating)은 baseboard heater, fan coil 등의 방열기에 보일러로부터 온수를 순환시켜 난방한다.

### 1) 주택평면구성과 실 배치

조선인 개인주택은 건축구조 및 건축양식과 동일하게 평면 또한 조선식평면과 서구식평면, 일본식평면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조선식의 대표적인 평면으로는 17-5 京城府新橋町某氏邸와 19-2 某氏邸이다. 17-5의 주택은 안방과 건넌방(越房)이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배치되는 전통적인 실 구성을 하며, 그 외 온돌과 부엌(廚房), 내루(內樓), 가정부실(女中室)이 복도로 연결되는 배치이다. 사랑채에서는 응접실로 명칭되는 실이 사랑대청과 인접하는 배치로, 전통의 사랑방대신 서구식의 실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욕실과 화장실(세면과 변소를 겸한다)은 현관 입구에 근접하며 동일 주거건물 내에 배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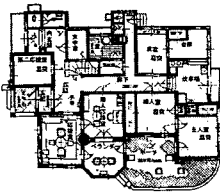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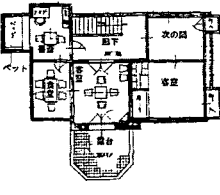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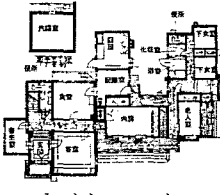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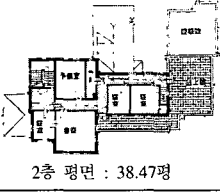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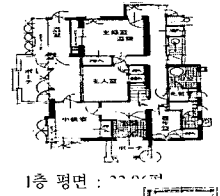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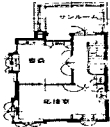
19-2의 주택은 전통의 안방과 사랑방을 주부실과 주인실로 구성하고, 이들 실은 모두 채광이 좋은 남쪽으로 배치되고 뒷마루를 넓게하여 일본식의 엔가와(緣側)<sup>12)</sup>로 구성하고 있다. 손님접대용의 응접실이 별도로 구성되고, 또한 일광욕실과 연결되어, 겨울의 채광으로 인한 난방에 도움이 되는 실로 배치하고 있다. 욕실과 화장실, 변소는 각각별도의 구성으로 17-5의 주택과 동일하게 주거 내에 배치하고 있다. 주택의 모든 실은 복도로 연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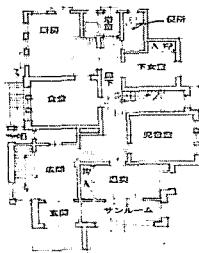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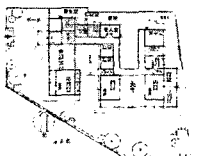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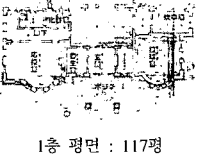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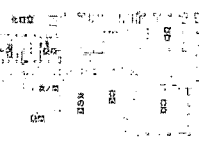
대표적인 서구식 평면인 8-2+7 禹鐘觀氏邸의 1층 평면은 남쪽으로 응접실, 부인응접실, 부인실, 주인실 등, 모두 부부와 관계하는 실 중심의 구성배치이다. 이들 실은 전통조선식 주택에서의 안방과 사랑방의 사용이 분리되는 것과 동일한 실사용의 구분을 제시하며, 동시에 침실기능과 손님접대라는 공적기능의 명확한 실 분리로 서구식의 기능적 사용에 따른 실 구성을 한다. 북쪽으로는 식당과 분리하는 부엌과 화장실, 욕실 등이 배치된다. 2층은 손님접대 기능이 중심으로 일본식과 서구식의 실을 함께 배치한다.

8-12 金洵洙주택의 1층 평면에서는 평면 중심에 안방을 배치하고 현관 옆으로 손님접대실(客室 표기)이 독립되는 배치이다. 남쪽으로 채광이 좋은 위치에 노인실을 배치하고 있다. 욕실, 화장실, 가정부실(下女室 표기)은 북쪽으로 배치되고, 부엌이 배선실

12) 엔가와(緣側)는 한국전통 주택의 뒷마루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하며, 일본주택에서는 외부에 접하는 이 부분에 유리문·덧문(雨戸)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표 3. 조선인 개인주택 평면

주택·평수	실 구성	실내 마감재료	실내구성재	전기조명	가구	실내장식
8-2+7 禹鐘觀氏邸  1층 평면 : 69평	土間, 玄關, 内玄關, ベランダ, ポーチ, 便所(2個所), 浴室, 階段, 炊事場, 臺所					
	広間, 廊下	바닥:미송나무 벽:회벽+카세인도장	여닫이문			
	応接室(主人)	바닥:inlaid리노륨 벽:벽지마감	(상동)	벨(電鈴)	테이블, 의자, 소파	
	婦人 応接室	(상동)	(상동)	(상동)	테이블, 의자, 소파, 책장, 피아노	
	主人室	바닥: 온돌(川上式) 벽:벽지 천장:일본식격자천장 + 회반죽	(상동)	(상동)		
	婦人室	(상동)	(상동)	(상동)		
	第二 応接室	바닥:조선제래온돌 벽:회벽+카세인도장	(상동)			
 2층 평면 : 27.04평	食堂, 女中室	바닥: 온돌	미닫이문			
	8畳 客間	벽:일본식 모래회반죽 바닥:다다미	일본식障子, 襖			床の間
	6畳 次の間	(상동)	(상동)		(상동)	
	客室	바닥:리노륨+양골갈기 벽:카세인도장	여닫이문	벨(電鈴)	테이블, 의자	
	食堂		(상동)		테이블, 의자	
書齋	바닥:리노륨 벽:카세인도장	(상동)	벨(電鈴)	테이블, 의자 책장, 침대		
8-12 金希洙  1층 평면 : 78.35평	玄關, 内玄關, 廊下, 縁側, 配膳室, 階段					
	書生室, 女中室(2個所)	바닥:온돌장판, 벽:문양벽지 천장:페인트도장	2층창, 조선식구성재			
	内房, 老人室	바닥:온돌장판 벽:천장:벽지	(상동)			
	客室	바닥:나무널판갈기(高木) 벽:문양벽지, 천장:페인트도장	2층창, 여닫이문		테이블, 의자, 소파	
	食堂	바닥:리노륨 벽:천장:합판위 벽지	(상동)			
	厨房, 浴室, 化粧室, 便所(2個所)	바닥:물탈, 벽:타일 천장:페인트도장	여닫이문			
 2층 평면 : 38.47평	物置, 屋上庭, タンク室, 階段(2個所)					
	書齋	바닥:나무널판갈기 벽:문양벽지, 천장:페인트도장	2층창, 여닫이문			
寢室(3個所), 子備室	바닥:온돌장판 벽:문양벽지 천장:페인트도장	2층창, 조선식구성재				
지하	暖房汽罐室					
11-2 禹鐘觀氏 新邸  1층 평면 : 22.41평	ポーチ, ホール, 小供室, サルルーム, 温泉, 化粧室, 階段					
	書生室, 主人室		여닫이문		押入	
	主婦室(客間)	바닥: 온돌	硝子障子		(상동)	
	浴室	바닥:벽,타일+시멘트회반죽 천장:합판				
	便所(2個所)	바닥:벽,타일				
 2층 평면 : 18.87평	応接室, 書齋, 廊下, 階段		여닫이문			
	サルルーム		일본식硝子障子			커튼
지하	보일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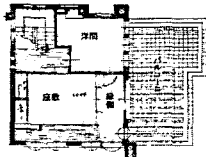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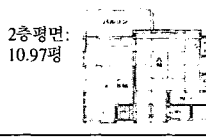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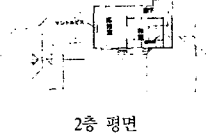

주택·평수	실 구성	실내마감재료 <sup>13)</sup>	실내구성재	전기·설비	가구	실내장식	
11-7 金明鎭氏 住宅  2층 평면 : 27.17평	1층	ポ-チ, 玄, 広間, 廊下, 階段, 土間, 下女室, サナルム		모든 창은 2중창			
	内房	바닥:온돌 벽:벽지 천장:회반죽	(상동)		押入		
	兒童室	벽:벽지 천장:회반죽	(상동)				
	食堂	바닥:리노리움 벽:벽지 천장:회반죽	(상동)				
	厨房	바닥:물탈	(상동)				
	浴室, 便所	바닥:타일 벽:중간까지 타일	(상동)				
	廊下, 階段		(상동)				
	2층	事務室, 寢室	바닥:리노리움 벽:벽지 천장:회반죽	(상동)			
	書齋	바닥:나무널판갈기 벽:벽지 천장:회반죽	(상동)	스텐드, 가전등	테이블, 의자	커튼	
	17-5 京城府新橋町 某氏邸 	단층	ポ-チ, 玄閣, 広間, 浴室, 化粧室(2個所), 厨房,  다락, 饌間				
書生室, 女中室		바닥:온돌	여닫이문				
應接室		(상동)	(상동)		押入	床の間	
内房, 老人室, 温突(2個所), 越房, 寢室		(상동)	유리접지		(상동)		
廊下大庁, 大庁, 内樓		바닥:나무마루갈기	유리문				
17-8 崔昌學氏邸  1층 평면 : 117평   2층 평면 : 90.8평	1층	ポ-チ, 玄閣, 書生室, 廊下, 階段, 理髮室, 化粧室, 便所					
	應接室	바닥:콜크판 깔기 벽:월넛베니어+티코벽지 천장:회반죽+페인트도장	유리창 여닫이문	산테리아, 벽등, 스텐드	테이블, 의자, 가리개병풍	벽난로, 벽난로에 조각대리석, 커튼,양단자	
	食堂	바닥:나무널판갈기 천장:회반죽+페인트도장	(상동)	산테리아	테이블, 의자	커튼	
	홀	(상동)	(상동)	(상동)	테이블, 소파	양단자	
	撞球室	바닥:테라조 벽:천장:회반죽	(상동)	(상동)	소파, 당구대	커튼, 벽난로	
	サナルム	바닥:모자이크 +조선산대리석	유리접지	천장등, 스텐드	테이블, 소파	조각유리, 스테인드 글래스	
	ベランダ	(상동)				(상동)	
	2층	廊下, 寢室, 次の間(2個所), 化粧室, 厨房, 階段(2個所)					
書齋	바닥:나무마루갈기	여닫이문		테이블, 의자, 소파, 책장, 책상	커튼, 양단자		
客間, 居間	바닥:다다미	일본식障子, 襖			床の間		
浴室	바닥:벽:모자이크 타일						

을 사이에 두고 식당과 분리되는 구성을 한다. 2층은 주인의 개인적 사용실인 서재를 제외한 침실중심의 구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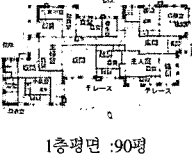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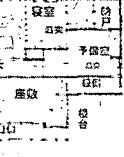
11-7 金明鎭氏주택은 8-12와 유사한 실 구성을 하며, 1층에 이동실(兒童室 표기)을 안방과 근접 배치하여 자녀실의 사용명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2층 평면은 8-12와 동일한 구성이다.

13) 실내마감재료는 일본어(古語)를 번역하였으며, 일부 번역이 가능하지 못한 재료명은 일본어(한자)로 표기하였다.

19-1 金明夏氏주택의 1층은 욕실 화장실, 변소부엌, 창고(納戸 표기)를 제외한 모든 실이 남쪽으로

주택·평수	실 구성	실내 마감재료	실내구성재	전기·설비	가구	실내장식	
18-3 尹氏邸  1층 평면  2층 평면	ポ-チ, 玄関, 裏女, 広間, 廊下, 縁側, テラス, 下女室, 階段, 土間						
	1층	応接室	바닥:나무널판갈기 벽:春光벽지, 천장:회반죽	2층창, 출창(出窓), 여닫이문	벽등	테이블, 의자, 소파,押し	
	主婦室	바닥:온돌 벽:천장:벽지, 종이	여닫이문, 미닫이문		押し		
	食事室	(상동)	출창(出窓), 미닫이문		찬장		
	炊事場		2층창		설거지대, 찬장선반		
	浴室, 便所(2個所), 洗面所	바닥:타일	(상동)				
	2층	縁側, バルコニ		유리문			
	洋間(書齋兼寢室)	바닥:나무널판갈기 벽:春光벽지, 천장:회반죽	2층창, 여닫이문	천장전등, 스탠드	테이블, 의자, 책상, 침대	커튼	
	座敷(客間)	바닥:다다미	유리문 일본식障子	천장전등		床の間	
	18-11 某氏住宅  1층 평면 :37.62평  2층 평면 :10.97평	1층	ポ-チ, 玄関, ホール, 廊下, 便所(2個所), 食堂, 階段, テラス, ベランダ, 納戸, 浴室, 脱衣室				
応接室			일본식 襖, 유리창	천장전등	의자, 테이블, 피아노	커튼	
八帖(客間)		바닥:다다미	일본식障子			床の間	
温突(2個所), 女中室		바닥:온돌	유리창, 미닫이문		押し		
臺所					설거지대, 가스대, 찬장, 선반		
2층		2층	ホール, W.C, バルコニ				
8帖	바닥:다다미	일본식障子, 襖, 유리창		押し	床の間		
4.5帖	(상동)	(상동)		선반			
19-1 金明夏氏住宅  1층 평면  2층 평면	1층	ポ-チ, 玄関, 広間, 上便所, 小台所, 温突, 縁側, 大戸, 厨房, 納戸, 浴室, 化粧室, 下便所, 階段, テラス, サンプルム					
	応接兼書齋	바닥:일본식합판(綠押板) 벽:골크 가공벽 천장:회반죽	유리창, 여닫이문	천장전등	책상, 의자, 테이블	커튼	
	内房, 越房	벽:横大津 천장:조선식 격자천장 +후지텍스페널	조선식 미닫이문	(상동)	조선식 옷장		
	2층	2층	階段, 廊下	유리문			
	応接室	바닥:綠押板 벽:가공벽 천장:텍스격자천장 +페인트문양	유리창, 여닫이문	천장전등	등나무의자, 테이블	벽난로, 커튼	
和室	벽:모래벽(砂壁)	일본식 襖			床の間, 棚, 地袋		
19-2 某氏邸  평면	단층	玄, 裏玄関, 広間(2個所), 書, 納戸, 縁側(4個所), 浴室, 階段, 板客室, 日光浴室, 便衣室, 浴室, 化粧室, 便所		미닫이문, 유리문			
	主人室(居間)	바닥:온돌 천장:텍스 격자천장	조선식미닫이문			床の間, 양탄자, 일본식책상, 가구	
	応接室	바닥:조선식 온돌 벽:棠壁 천장:텍스 격자천장	조선식 미닫이문과 유리혼합	천장전등	押し, 의자, 테이블, 서구식가구	床の間, 棚, 양탄자	
	主婦室, 生室, 女中室	바닥:온돌	(상동)		押し		
	厨房				설거지대		



주택	실 구성	실내마감재료	실내구성재	전기·설비	가구	실내장식	
19-2 李氏邸  1층평면  2층평면	ポーチ, 玄関, 階段, 縁側(2個所), 便所(2個所), 廊下(2個所), 洗面室, 脱衣室, 事務室, 浴室, 下入室, 厨房, テレス						
	1층	応接室 舎廊, 越房, 内房	바닥:나무널판갈기 벽:槨壁 천장:카세인 텍스도장 바닥:온돌 조선택미담이문	프래시도어 천장전등 조선택미담이문	의자, 테이블 押入	벽난로	
	2층	縁側, 階段, 廊下, 裏物置(小部屋) 書齋 客間	바닥:온돌 바닥:다다미	조선택미담이문			床の間
	지하	기관실					
	20-4 金氏邸  1층평면 : 90평  2층평면 : 36평	ポーチ, 玄関, 広間, 縁側(4個所), 内玄, 廊下, 浴室, 便所(2個所), 階段, 板間, テレス(2個所)					
		1층	応接室 書齋(客室) 書生室, 女中室, 食堂, 主人室, 小供室, 越房 主婦室	바닥:나무마루 바닥:온돌 (상동) (상동)	천장전등 (상동)	의자, 테이블 의자, 테이블, 押入	벽난로, 커튼 커튼
2층		階段廊下予備室化粧室納戸: 縁側(2個所), 露台 座敷 縁間 寢室	바닥:다다미 (상동) 바닥:온돌	조선택미담이문, 일본식서원(書院造)	押入	床の間	보료방석

배치되며, 대청이 현대의 거실과 같은 기능을 갖고 부엌과 연결되고 있다. 각 실의 위치 차이는 있으나 안방과 건넌방의 배치는 대청을 사이에 두고 구성되는 전통 조선식의 실 구성이다.

2층은 손님접대기능의 실이 일본식인 자시키(座敷 표기)와 서구식의 응접실로 구성하고 있다.

일본식의 평면으로는 18-11 某氏주택이다. 전형적인 중북도형의 일식주택 평면으로 1층은 현관, 욕실, 화장실, 변소, 가정부실을 제외한 모든 실이 남쪽으로 배치하고 있다. 8조(八帖 표기)의 다다미실과 서구식의 응접실은 손님접대기능의 실로 구성되고, 그 외 실들은 조선식의 온돌방을 구성하고 있다. 2층은 모두 일본식 다다미실 구성을 한다.

주택평면구성과 배치에서 다음의 공통적인 특성을 정리할 수 있다.

(1) 조선식 주택의 전통적인 실 구성인 안방과 사랑방의 구별이 없어지고 있다. 안방은 서구식 주택에서도 존속하고 있으나, 사랑방은 응접실 또는 서

재겸용접실(応接兼書齋), 손님접대실(客室)로 구성되어 기능전환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안방이 주부실로 사랑방이 주인실로 실의 명칭이 전환되고 있다.

(2) 개인공간인 온돌방 및 침실과 공적공간인 응접실로 명확한 실의 기능분리가 이루어지는 평면 구성을 한다.

(3) 안방, 침실, 온돌방, 응접실, 노인실, 아동실은 채광이 좋은 남쪽에 배치되고, 욕실, 화장실, 변소, 부엌 등의 실은 북쪽으로 배치하여 남북방향으로 분리되는 실 구성을 보인다.

(4) 모든 개인주택평면에는 전통조선식 주택에 존재하지 않는 포치(ポーチ 표기), 테라스(テラス, テレス 표기), 션룸(サンルーム 표기), 서재, 침실, 응접실, 현관, 욕실, 화장실 등과 같은 서구식 공간과 자시키, 8조, 4.5조, 엔가와 등의 일본식 주택 공간이 부분적으로 첨가되는 구성을 보인다.

(5) 전통 조선식 주택구성에는 없는 화장실과 변소, 욕실의 내실화가 이루어지는 평면의 변화를 보인다.

위생시설의 생활개선으로 볼 수 있다.

(6) 부엌과 식당의 분리로, 식당은 독립적인 기능을 갖는 실로 구성되어 부엌과 인접하는 위치에 배치하고 있다. 이는 조선식의 전통적인 주거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실에서의 취침과 식사가 혼재하는 주거생활의 개선이라 할 수 있다.

(7) 세 가지양식의 주택평면에는 모든 실들이 각각의 독립적인 실로 구성되고, 이들 실들은 복도 또는 일본식 엔가와 형식으로 연결되고 있다.

(8) 당시 서구문화의 유입과 생활개선에 의한 거실(가족실)중심<sup>14)</sup>의 평면배치는 조선인 개인주택에서 나타나지 않으며, 가족중심의 거실이 아닌 손님접대 기능인 응접실 또는 서재겸응접실이 평면에 구성되고 있다.

2) 실내마감재료 및 실내구성재

실내마감재료는 취침기능을 갖는 실들의 바닥을 온돌(조선식 재래온돌과 개량온돌)의 장판마감으로 하며, 벽은 벽지 또는 문양이 있는 벽지마감을 한다. 천장은 합판, 합판격자천장, 회반죽의 재료마감 또는 종이 및 페인트도장을 한다. 손님접대기능의 응접실과 서재, 객실(客室)에는 바닥을 나무널판 또는 합판마루마감을 하며, 리노리움, 콜크판 등 새로운 서구 마감재료의 사용을 보인다. 벽에서는 회반죽 마감과 벽지(문양벽지포함) 마감이 일반적이며, 콜크가공벽 또는 월넛 베니어판 위 티코벽지, 카세인<sup>15)</sup> 도장이라는 서구식 마감을 하기도 한다. 천장은 격자천장과 회반죽 위 페인트 또는 카세인도장, 종이마감으로 처리하고 있다.

위생시설인 욕실, 화장실, 변소는 바닥·벽을 청결과 청소의 용이함을 위해 타일로 마감하고 있다. 부엌과 독립되는 식당은 바닥마감을 온돌 또는 리노리움 깔기, 나무널판 깔기로 하며, 벽은 합판 위 벽지 마감, 천장에서는 합판 위 종이마감 또는 회반죽과 페인트 도장으로 서구식의 마감처리를 하고 있다. 자시키(座敷), 쓰기노마(次の間), 8조(八帖) 등 그 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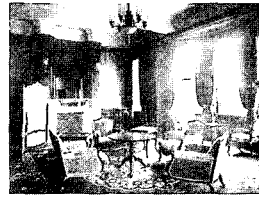


그림 1. 17-8 崔崑學氏邸 1층 응접실



그림 2. 19-2 某氏邸 응접실



그림 3. 19-1 金明夏氏邸안방



그림 4. 18-3 尹氏邸客間

일본식 실은 모두 바닥을 다다미마감으로 하며, 벽은 모래벽(砂壁), 모래회반죽(砂漆喰)<sup>16)</sup> 마감으로 실 전체가 전통적인 일본식 재료의 마감처리를 한다.

실내구성재에서는 전통적 조선식주택이 대부분 미닫이 형식의 장지문과 미닫이창 또는 나무의 여닫이문으로 되어있으나, 개제된 실물주택에서는 조선식의 장지문 사용 이외에 서구식의 여닫이문과 유리문, 출창(出窓), 유리창, 2중창 등의 구성재 사용을 보이고 있다. 2중창의 구성재는 방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식의 쇼오지(障子)<sup>17)</sup>와 후스마(襖), 유리가 끼워진 쇼오지(硝子障子)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복도와 대청 등 외부와 접하는 부분은 유리문이 설치되어 전통의 조선식주택에서 사용하지 않는 구성재 사용으로 전통주택의 외관변형을 나타내고 있다.

3) 실내가구·장식 및 전기·설비

실내가구는 응접실, 서재 등의 서구식 실에 서구양식인 입식생활과 일치하는 의자, 테이블, 소파, 책상, 책장 등의 가구를 설치하며, 조선식 주택에서도 가구만으로 서구생활을 표현하기도 한다. 조선식의

14) 서귀숙(2004)의 연구논문(조선건축회 활동으로 보는 주대근대화.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5권 1호)에 의하면, 1922년 개선주택설계도안현상모집에서 가족생활 중심의 서구식 거실중심형 주택의 제안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개선안 모집을 실시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당시 大正期 일본 내에서도 주택개량운동으로 거실중심형의 주택이 제안되어 보급되었다. 15) 카세인(casein)은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로 접착제 또는 수성도료에 사용한다. 카세인을 두껍게 바르고 기구 등을 사용하여 무늬를 만들거나 그 위에 페인트 등으로 마감하는 공법을 카세인 도장이라 한다.

16) 모래벽(砂壁, sand coat)은 색모래를 풀에 반죽하여 도장한 벽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일본식 주거 벽마감에 사용된다. 모래회반죽(砂漆喰)은 모래를 혼합시킨 회반죽 또는 마감한 면을 말한다. 17) 일본주택 실내의 경계부분, 창 등에 세워지는 건구(建具)로, 한지와 같은 종이를 바른 明障子和 문의 아래부분을 유리로 하는 硝子障子, 나무재료를 사용한 襖障子 등이 있다.



그림 5. 18-11 某氏邸 부엌

표 4. 조선인 개인주택 생활양식

분류	집·호	구조·외관	실 구성	실내구성재	기거양식
①	17-5	조선식	조선식+서구식 첨가	조선식+서구식·일본식 첨가	조선식+서구식 첨가
②	19-2	조선식	조선식+서구식·일본식 첨가	조선식+서구식·일본식 첨가	조선식+서구식 첨가
③	8-12 11-2 11-7	서구식	서구식+조선식 첨가	서구식+조선식 첨가	서구식+조선식 첨가
④	17-8	서구식	서구식+일본식 첨가	서구식+일본식 첨가	서구식+일본식 첨가
⑤	8-2+7	서구식	서구식+조선식·일본식 첨가	서구식+일본식 첨가	서구식+조선식·일본식 첨가
⑥	18-3	서구식	일본식+서구식 첨가	일본식+서구식 첨가	조선식+서구식·일본식 첨가
⑦	19-1 19-2 20-4	서구식	조선식+서구식·일본식 첨가	조선식+서구식·일본식 첨가	조선식+서구식·일본식 첨가
⑧	18-11	일본식	일본식+조선식·서구식 첨가	일본식	일본식+조선식·서구식 첨가

안방은 전통의 조선식 옷장이 배치되고, 이외의 실에는 일본식의 오시이레(押入)를 실내맞춤형 반침으로 사용한다. 실내장식요소로는 서구식 가구와 조화되는 커튼과 바닥의 부분적 양탄자가 사용되고, 난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벽난로, 스토브가 실내에 설치된다. 일본식 실에는 도고노마(床の間), 도다나(戸棚)의 전형적인 일본장식가가 설치되고 있다.

주거에 있어서 위생적 부분인 부엌과 욕실, 변소는 전통주택의 형식이 아닌 근대적 설비를 사용하고 있다. 욕실과 변소는 급수와 정화조설비를 갖추며, 변소는 수세식(17-8 崔昌學氏邸)의 서구설비를 한다. 특히, 당시 많이 거론되었던 부엌<sup>18)</sup>의 위생문제는 설거지대와 가스대, 찬장, 선반 등의 부엌가구를 설치하여 음식 조리기구의 근대화와 효율적인 작업공간 확보, 부엌물품의 위생적 관리 등이 가능한 부엌개량으로 이루어지며, 이로써 식생활의 개선을 보이고 있다.

전기는 실내전등 설치로 전통의 생활을 개선하고 있다. 즉, 당시의 전기는 근대적 문화생활의 표현이며, 주거생활을 향상시키고, 생활의 행복을 위한 생활용품으로 설명<sup>19)</sup>하고 있다.

### 3. 조선인 개인주택의 생활양식

<표 2>와 <표 3>의 건축구조 및 건축양식, 실 구

성, 실내구성재, 기거양식<sup>20)</sup>을 조선식과 서구식, 일본식으로 분석한 결과, 조선인 개인주택의 생활양식은 <표 4>와 같이 8가지로 분류한다.

건축구조와 외관이 전통적 조선식 주택구조에서는 조선식 실 구성에 서구식의 응접실을 부가하거나 일본식의 복도형이 첨가되는 형식이다. 실내구성재는 재래의 조선식과 서구식, 일본식이 혼재하고, 기거양식에서도 조선식의 좌식과 일부분 서구식의 입식이 혼용되는 양식을 보인다.

서구식의 건축구조와 외관의 주택에서는 전형적인 서구식 실 배치에 조선식의 온돌실(안방)을 부가하거나, 또는 손님접대실(客間)과 쓰기노마(次の間)의 전통적 일본식 실이 첨가하는 형식이다. 8-2+7 禹鐘觀氏邸의 경우는 조선식과 일본식 실이 함께 첨가되는 실 구성을 한다. 따라서 조선식 또는 일본식의 구성재가 사용되고 기거양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서구식의 입식과 일부분 조선식의 좌식 또는 일본식의 좌식이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18-3 尹氏 주택에서는 서구식 건축구조이면서 일본식 중복도형의 실구성과 배치를 한다. 그리고 응접실과 서재침실의 서구식 실을 첨가한다. 기거양식에서는 일본식 실을 온돌로 처리하여 조선식의 좌식을 나타내며 일부분 다다미의 일본 좌식과 서구식의 입식이 혼재하고 있다.

19-1 金明夏氏邸와 20-4 金氏주택은 서구식 건축구조이나 조선식의 실 구성을 기본으로 서구식의 응접실

18) 홍석후(1921.4.3), 緊急한 衛生問題, 동아일보 김유방(1923), 문화생활과 주택, 개벽, 2월, p.57  
박길룡(1929.5.18), 잘 살려면 집부터 고칩시다, 조선일보  
박길룡(1932.8.8-14), 廚에 대하여(전6회), 동아일보 특집, 생활개선은 부엌에서부터(4)조선일보, 1940.8.4  
19) 이백규(1930.3.1), 電燈과 照明에 대하여(1), 조선일보

20) 본 연구에서 기거양식은 각 실의 바닥마감에 따라 온돌은 조선식, 다다미는 일본식, 대청을 제외한 나무마루 등은 서구식으로 분류하였다.

겸서재와 일본식 실(和室, 座敷)을 첨가하는 형식을 보이며 20-4金氏주택에서는 중북도형의 일본식배치로 결국, 조선식 실 구성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실내구성재 사용과 기거양식에서도 조선+일본+서구의 세가지 양식이 혼용되는 생활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식 건축구조와 외관을 보이는 18-11 某氏邸에서는 전형적인 중북도형의 일본식 실구성과 배치를 하며, 조선식의 온돌 실과 서구식의 응접실을 첨가하고 있다. 실내구성재는 모두 일본식으로만 사용하며, 실구성과 동일하게 세가지 양식이 혼용되는 생활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 IV. 결 론

『朝鮮と建築』 권두그림에 게재된 조선인 실물주택의 고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강점기 실제 건축되어진 조선인 개인주택은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당시 조선 내 일본인에 의한 설계와 시공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일본인에 의한 건축설계로 당시 시대의 주류인 근대적 사고에 입각한 주택설계라기 보다는 일본인의 주관적 근대사고에 의한 조선인 주택설계였음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조선인 실물주택의 구조양식에서는 재래의 조선식 구조 이외에 벽돌조적식과 콘크리트 등의 서구식 구조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식 건축구조의 사용도 보이고 있다. 건축재료 또한 서구식 구조방법에 일치하는 새로운 재료사용을 보이고, 보온설비는 재래의 온돌 이외에 서구식 난방설비로 개선하여 이를 수용하지만 근본적인 방한대책이 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조선식 주택에서는 안방과 사랑방의 사용 및 구별이 소멸되고 있으며, 서구식 또는 일본식 실들이 첨가되는 조선식 주택의 변형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실들의 명확한 기능에 따른 분리와 위생시설의 정비 및 취침과 식사실의 분리는 서구식 주거 생활을 받아들이는 주거개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넷째, 실내마감재료 및 실내구성재, 실내가구, 장식과 전기, 설비 등에서도 전통의 조선식과 함께 서구식과 일본식이 혼용되고 있다.

다섯째, 조선인 주택은 결국, 조선식 양식에 서구식을 부가한 조선식주택의 서구화를 보이거나 또는 일본식 실 첨가와 실내구성재를 일본식으로 사용하는 등, 일본화로의 생활양식 변화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전형적인 서구식 양식에서도 조선식 온돌 실을 첨가하여 조선인의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식 양식에서도 조선식 실의 부가로 재래 생활을 완전히 새로운 양식으로 전환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조선인 생활양식의 제도와 습속이 큰 역할로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이 실제로 생활하기 위한 개인주택 건축에 관한 본 연구는 상류층의 개인주택으로 고찰 대상 사례가 다소 제한적이었던 점이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결국, 당시 조선의 주거변화는 일부 특권층에서 시작되는 주거건축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근대적 주택과 근대적 생활개선으로 한국주거의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서구 지향화에 근거하는 변화를 답습하고 모방하는데 불과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실물 개인주택을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당시 외국의 문화가 한국주택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반영되어 갔는지, 이로서 일제강점기 한국주택의 변화를 추적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서민의 실물 개인주택에 대한 자료수집과 주택을 분석하고 상류층의 개인주택과 비교하여 전체적인 한국주택이 이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어 갔는지에 대한 연구와 제가 계속되어야 하겠다.

#### 참 고 문 헌

1. 조선건축회, 『朝鮮と建築』, 제1집-제23집.
2. 中村圭介(2000), 『文明開化と明治の住まい』, 理工学社.
3. 서귀숙(2004), 『조선건축회 활동으로 보는 주택근대화』,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5권 1호, p. 63-74.
4. 박선희(1999), 『춘원 이광수의 주생활 개선 인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 10권 4호, p.53-62.
5. 김영호, 박용환(1999), 『일제시대 조선은행사택의 건축적 의미』, 한국주거학회지 제 10권 4호, p.101-109.
6. 김명선, 심우갑(2002), 『1920년대 초 『開闢』誌에 등장하는 주택개량론의 성격』,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 18권 10호, p.115-122.